

국산 전기차, 미국 경찰이 탄다

고유가시대를 맞아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기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4륜 전기차 'e존'이 미국 경찰의 주차 단속용 순찰차로 채택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차는 지난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내린 '2008 광주국제자동차·로봇전'에서 전시돼 지역 운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미국 경찰, 한국 전기차 탄다=전기차 전문 생산기업인 CT&T는 최근 미국 경찰에 전기차인 'e존' 4천대를 5만달러에 수출 계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기차는 미국 현지 판매 대행사인 'T3모션'을 통해 각 지역 경찰국에 공급되며, 배터리로만 움직이는 친환경 차량으로 꼽힌다. 이에 앞서 CT&T는 지난 8~12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국제경찰청장협회'의 전시회에 참가해 전시기간에만 100대 이상의 수주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샌타모니카 경찰국은 25대를 올해 안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향후 시장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CT&T 주차 단속용으로 4,000대 수출 계약
유지비 90% 절감...미국 보안업체에서도 관심
시속 55km, 국내에선 "느리다" 도로 주행 불허

이 회사는 또 12월 초에는 미국 내 2천 500여개의 소공물 보안을 맡고 있는 5개 대형 보안업체 관계자들과 합동 구매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계약 목표 물량은 최소 5천대 이상으로, 미국내 공급 물량을 1만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높은 관심을 끄는 것은 기존 휘발유차에 비해 유지비를 90% 이상 절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e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2~3t이나 낮출 수 있는 친환경차라는 점에서도 회사측이 시장 확대를 자신하고 있다. CT&T 관계자는 "미 경찰로부터 국산 전기자동차의 디자인과 성능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아 일본과 유럽의 전기차를 제치고 계약을 따냈다"며 "미국의 사설 보안업체나 연방 우정국 등의 관심도 크다"고 말했다. ◇월 유지비 1만원대의 친환경 전기차는 'e존'은 올해 CT&T가 도로 주행용으로 개

발한 전기차로, 최고 속도는 시속 55km다. 전기로 움직이는 5kW급 모터를 장착해 4시간 가량 충전하면 최고 속도로 70~11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e존'은 교류 전류(AC) 모터가 장착돼 있으나 미국 납품시에는 현지 사정에 맞는 직류 전류(DC) 모터로 바꾸기로 했다. 또 에어백·경광등·사이렌, 주차 단속용 카메라와 모니터 등을 부차에 납품된다. 'e존'은 국내에선 시판가격이 1천140만원부터 시작되며, 배터리의 종류와 도어 타입 등에 따라 1천950만원까지 다양하다. 배터리도 납축배터리와 리튬폴리머배터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납축배터리의 경우 1회 충전시 50~70km를, 리튬폴리머는 100~110km를 운행할 수 있다. ◇국내에선 도로 주행 못해=현재 유럽 연합(EU)은 전기차에 대해 브레이크와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만 장착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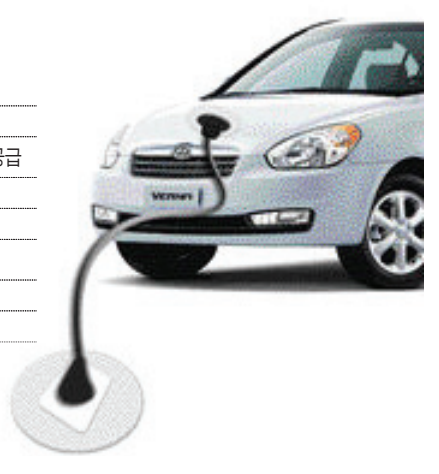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1개주 가운데 47개 주가 전기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동차의 상용화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향후 미국의 도로를 누빌 'e존'은 정작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탈 수 없다. 시속 80km 이하의 저속 전기자동차는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일반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행을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산 전기자동차는 골프장용 전동 카트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골프장에 팔린 국산 전기자동차는 5천여대에 달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속 80km 이상을 달릴 수 있고, 완성차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현 법규상에도 도로를 달릴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도로 상황이 취약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을 그대로 벤치마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산 전기차 'e존'의 생산업체인 CT&T의 이영기 대표(오른쪽)는 지난 27일 미국 경찰에 3륜전기순찰차를 목적 공급하는 'T3모션'의 남기영 대표와 경찰용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기아차 친환경차 개발 상황

- 2002년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
- 2004년 투싼 및 스포티지 연료전지차 개발
- 2005년 베르나 및 프라이드 하이브리드 정부 공급
- 2006년 수소연료전지 버스 독자개발
- 2009년 이반떼 LPI 하이브리드 양산 개시
- 2010년 쏘나티급 기술린 하이브리드 양산 개시
- 2012년 수소연료전지차 생산 체제 구축
- 2013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생산 개시



'집에서 충전하는 車' 5년내 국내서 양산

현대·기아차, 3개사와 배터리 시스템 개발 협약

앞으로 5년 뒤에는 각 가정에서 전기를 충전하는 국산 플러그인자동차(PHEV)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 시스템을 최대한 구입해 2013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국내에서 본격 시판할 계획이다. 32km 개발 과제에는 LG화학과 SB리모티브가 참여하며, 향후 5년간 소재 부문을 비롯한 배터리 시스템 개발 경쟁을 벌이게 된다. 16km 및 32km PHEV는 가정에서 충전한 배터리의 힘으로 16~32km를 운행할 수 있다. 전기동력을 이용한 주행 후에 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행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다 연비가 높다는 게 현대·기아차의 설명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일본의 배터리업체들이 수차례 납품 조건을 제시했지만 거절했다"며 "핵심부품의 국산화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3년 뒤 두 업체의 결과를 평가해 1개

협약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추가 지원을 받으며, 16km PHEV 배터리 시스템을 양산한다. 현대차는 이 시스템을 최대한 구입해 2013년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국내에서 본격 시판할 계획이다. 32km 개발 과제에는 LG화학과 SB리모티브가 참여하며, 향후 5년간 소재 부문을 비롯한 배터리 시스템 개발 경쟁을 벌이게 된다. 16km 및 32km PHEV는 가정에서 충전한 배터리의 힘으로 16~32km를 운행할 수 있다. 전기동력을 이용한 주행 후에 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행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다 연비가 높다는 게 현대·기아차의 설명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일본의 배터리업체들이 수차례 납품 조건을 제시했지만 거절했다"며 "핵심부품의 국산화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3년 뒤 두 업체의 결과를 평가해 1개

세계 전기차 비교	미국 GEM/GEM e2	이탈리아 지라슬레/Elettrica	일본 미쓰비시/MiEV	한국 CT&T/e-존
전장·전고·전폭(mm)	2515·1780·1400	2345·1260·1510	3395·1475·1600	2570·1560·1440
차체중량(kg)	576	420	1080	520
최고속도(km/h)	40	60	100	55
주행가능거리(km)	56	120	160	60~120
배터리	납축	리튬이온	리튬이온	납축/리튬폴리머
승차인원	2	2	4	2
판매가격(원)	1750만	2480만	4000만	납축:1200만·리튬:1800만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출장점 (062) 227-9970

리첸 주방가구

광주직영전시장 **OPEN**

상주점: 054-200-1150 2008.11.28

실종된 애인을 찾습니다!
30,40,50부킹몰!

리본 ₩19,500 경제가 오는 날까지 두옥 계속됩니다

서울권 광개비메나이트

(대인동 롯데백화점 뒤/예약: 062-226-9334)